

지역밀착형 생활SOC 선점

임실군, 다채로운 지역밀착형 생활 SOC 신규 발굴... 이달 말 까지

임실군이 정부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팔을 걷어부쳤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정부에서 지역중심의 생활 인프라에 총 8조 7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는 대형사업이다.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실군이 생활SOC사업의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다.

군은 10월말까지 다양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발굴해 나간다.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일환이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과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군은 박진두 부군수 주재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에 대응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기도 했다.

군은 보고회를 통해 투자과제별 신규사업 발굴과 투자사업분야 미추진 사유에 대한 의견과 열띤 토론 등을 거쳐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임실군이 정부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팔을 걷어부쳤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진두 부군수는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은 공모선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연일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 주도의 국가사업 확보는 살기 좋은 임실을 만드는 필수 조건이다.

그만큼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심 민 군수는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이 기회를 잘 살려,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항시 중앙부처 동향 파악에 집중하고 인적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여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접수

10월 12일까지 신청

소채지 읍면사무소 신청

순창군이 10월 12일까지 '2018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농지 소채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받는다.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하여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기준가격은 품목별 생산비 및 유통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생산비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을 근거로 최근 5개년 기준으로 전국평균비용을 적용한다.

올해 대상품목은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견고추와 가을무가 선정됐다. 상반기에는 견고추 품목에 대해서 신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가을무 품목에 대해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법인)이나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로, 품목당 1,000㎡ ~ 10,000㎡를 재배하는 농가에 한한다.

설태승 농축산과장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기대한다"며 "가을무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몸도 마음도 튼튼!... 공공승마장서 승마교실 운영

순창군, 신체건강위기 '아동' 15명 대상 11월까지

순창군이 신체발달이 부진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승마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신체 건강위기 대상 133명중 15명을 대상으로 순창군공공승마장에서 11월까지 10회에

결쳐 진행된다. 아이들은 안전수칙 및 승마복 착용 등을 시작으로 올바른 기승 자세, 승마법, 경속보법 등을 배우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모군은 "말과 가까이 하면서 점점 무서움이 없어지

고, 말을 직접 만져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웠다"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순창군이 아동들의 신체발달과 정서 안정을 위해 사레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각 실과의 출입문을 모두 투명유리문으로 교체했다.

'매우 친절함 남원시청 만들기'

각 실과 출입문 모두 투명유리문 교체

남원시는 각 실과의 출입문을 모두 투명유리문으로 교체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그동안 사용하던 목재출입문은 청사를 방문한 인허가 관계자나 각종 방문 민원인이 밖에서 사무실을 볼 수 없어 단절감과 거리감, 폐쇄감을 주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소 이환주 시장은 "친절함정서 비스 함상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시청 전체에 친절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시는 친절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높이고 있는 한편, 실과소·읍면동마다 부서별 친절아이스디어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는 등 전 직원이 친절도를 높이고 있다.

남원시의 친절행정은 가시적인

성과로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지난 8월에 실시한 전화 친절도 조사결과 평균 91.2점으로 전년대비 9.7점 큰 폭 상승하였으며, 남원시는 이를 계기로 내년도부터는 친절 인센티브와 불친절 패널티 등 각종 친절향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친절은 민선7기 시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투명유리문 교체는 탈권위적이고 밝은 청사 분위기를 위하여 의견을 모아 추진하였다"며, "친절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매우 친절함 남원시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 아리

남원시보건소 내달 11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작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어린이는 지난 11일부터, 어르신은 10월 2일부터 지정 병·의원에서 실시하고, 보건기관(보건소·지소·진료소)은 10월 15일부터 일제히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보건기관 무료접종 대상자는 남원시민 중 만60세~64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과 만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만12세 이하 어린이이며, 대상자는 신분증과 장애인복지카드, 의료급여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위탁 의료기관과 협력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보건소 내달 11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실시

임실군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내달 11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군은 올해 8,200명을 접종계획 인원으로 잡고 예방접종을 지정 운영해 일시에 불리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접종인원 및 시작시기를 분산,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무료접종은 만65세 이상, 생후 6개월에서 12세 이하 어린이, 사회복지시설생활자, 기초수급생활권자, 국가유공자, 외국인임민자, 장애인(1~3급)이다. 대상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올해 확대 시행되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정 의료기관(임실 다사랑의원)에서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약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6개월 가장 면역효과가 지속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보건소의료원 예방접종실(☎640-3126)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